

2024. 5. 11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0일 오전 11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서북병원

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	박신애	3156-3244
팀 장	김재은	3156-3455
담당자	최주윤	3156-3286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: 4쪽

서울시 서북병원, 특별한 '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입원환자 미술전' 개최

- 5월 14일(화)까지 서북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환자 미술전 개최
- 암 환자, 입·퇴원 수술 반복되는 투병생활에도 삶의 의미 찾아 글과 그림 작업
-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감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개인전 마련

- 서울시 서북병원은 암으로 입원한 한 환자가 힘겨운 투병생활에도 일상의 희망을 담아 직접 글과 그림을 그린 작품 492점을 전시하는 특별한 '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입원환자 미술전(개인전)'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최하고 있다.
- 미술전 주인공은 2018년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·퇴원을 반복하며, 통증과 신체적·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스케치북에 본인의 일상을 담아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.
-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처음 입원할 때는 앓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스케치북에 일상을 담는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글과 그림을 남겼다.

- 이에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매일 일상을 그리는 모습에 감동하여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자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였다.

- 5월 1일 전시 첫날 가족들과 의료진 등이 모여 미술전을 개최하였다.
 - 그림의 주인공은 전시회를 주저하였으나, 그림을 통해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와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의료진들의 설득으로 전시회 개최를 결심하였다.
 - 5월 1일 개소식에는 움직일 수 없어 병상 침대에 누운 상태로 참석하였으며, 가족 및 의료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모처럼 환한 미소로 즐거워하였다.

- 한편, 서북병원은 올해 1월 22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19 병상에서 39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.
 - 서울시 서북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는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고, 환자의 존엄성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 다학제적 돌봄과 약물 및 비약물 치료(미술, 음악, 원예, 이완요법)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
- 이창규 서울시 서북병원장은 “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이 어찌면 모두가 힘든 공간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.”며 “서북병원은 환자의 고통은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□ 관련사진



□ 전시개요

- 전 시 명 : 서울특별시서북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000 미술전
- 전시기간 : 2024. 5. 1.(수) ~ 5. 14.(화) 10:00 ~ 15:00
- 전시장소 :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35병동 휴게실(본관 5층)
- 전시내용 : 글과 그림 492점

